탈(脫) 탈원전

전문가 칼럼

허균영
원자력공학 교수

원자력은 지금 당장 퇴출을 결정할 만큼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나쁘지도 않으며 쓸 만한 에너지원이라 확신한다. (사진=중앙일보DB)

환갑이 넘으신 필자의 어머니께 전화로 안부를 여쭙는다. 뜻밖에 말씀을 하신다. '요즘 신고리 5, 6호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니?' 명색이 자식이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하고 있으니 원자력 이야기가 눈에 좀 더 밟히시리라 생각은 된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때에도 그저 괜찮은지만 물으시던 것을 떠올리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원자력 정국(政局)'임에 틀림없다.

지난 대선 때를 돌이켜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사실상 모든 후보가 원자력을 '나쁜 놈'으로 낙인찍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우리나라의 최신형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수출했다는 뉴스 이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납품비리, 사고은폐, 최근 경주 지진, 절묘한 타이밍에 개봉된 영화까지 일련의 사건들은 탈원전을 향한 일종의 전조였다. 원전 인근 도시 주민의 불안감은 고조됐고 정치인에게 탈원전 공약은 상당히 매력적인 주제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의 상황은 바로 우리 어머니도 아시는 그 상황이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1호 원전인 고리원전의 작별식 자리에서 전격 탈원전 의지를 밝힌다. 동시에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사업을 중지시켰으나, 찬반여론이 비등하자 건설 중지 최종 결정은 시민참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방송, 신문 등을 통해서 10월 20일까지 활동할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았을 것이다.

탈원전의 찬반논리는 그 자체로 백과사전을 쓸 수 있을 정도다. 원전 하나만 가지고도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역사를 재현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양측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탈원전은 원자력 문제이자 에너지 현안이며,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고, 국제 정세도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한다. 그 중요성과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 이상으로 부상한 적이 없었다. 현재의 상황은 국민들이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국민적 관심사를 높였다는 점 이외에 현재의 상황은 아쉽게도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어려움은 갈등구조가 더욱 세분화되어 문제 해결이 요원해졌다는 점이다.

이전의 논의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구도였다면, 지금은 정치권의 대립은 물론이고 지역간, 세대간, 직군(職群)간, 전문가와 시민, 특히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대치로도 분화되고 있다.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사람들은 어느 한 편에 설 수 밖에 없다. 일단 한 쪽에 서면 그 때부터는 진영논리가 강화되고 고착된다.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등 많은 이슈에 대한 설명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필자도 해당분야에서 일을 하는 만큼 원자력의 장점과 단점을 평균 이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자리에 따라 원자력의 명암에 대한 설명이 균형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매우 명확한 점이 있는가 하면 그저 바람인 점도 있으나, 설명하다보면 상세히 구분되지 않는다.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가 원인까지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정말 세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다. 전망치는 과거의 추이를 이용한 미래 시점의 외삽일 뿐이다. 미래가 전망대로 실현되는 것이 오히려 신기한 것이다. 여기에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순간 탈원전의 득실에 대한 논의는 네버엔딩이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현실에서 필자가 물러서고 싶지 않은 마지노선은 탈원전, 즉 원전제로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전소 건설의 완급은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하에서의 원전 감소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원전 조정은 다른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서서히'라는 수식어를 탈원전 정책 앞에 붙이기 어려워 보인다. 탈원전을 한다면 우선 해당분야로 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다. 가라앉는 배에 올라타고 싶을까? 교육과 산업도 마찬가지다. 좋은 인력과 양질의 부품이 공급되지 않으면 원전은 사상누각이 된다. 상황이 생겼을 때에 해소할 방법도 없다. 원자력계는 규탄 당하고 모든 원전이 정지된다. 신규원전 도입은 불가능하다. 생각보다 빠르게 밀어닥친 전력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운명이 될까.

원자력은 지금 당장 퇴출을 결정할 만큼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나쁘지도 않으며 쓸 만한 에너지원이라 확신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느닷없이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질 여지는 산적하다.

이럴수록 다양한 옵션을 갖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 경쟁을 통해 장점을 향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몰라서 못 하는 것과 알지만 안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차떼고 포떼고 장기를 두는 우리나라를 착한 나라라고 칭찬할지는 몰라도 현명한 나라라고 할 사람은 없다.

에너지 현안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개론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원래 부여된 대로 제대로만 작동되면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책임을 지고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곳에서 정작 힘을 쏟아 부어야 할 일은 뒷전이 아닌지 걱정이다.

참여마당

안덕훈
(한국어학 2017)

낡은 병원같던 '우정원'

하루를 끝내고 친구들과 기숙사에 삼삼오오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기숙사를 배경으로 한 시트콤 '논스톱'에서 자주 등장하던 모습이다. 어렸을 적 이 청춘 시트콤을 시청하던 필자는 '저런 모습이 바로 대학생활이구나, 기숙사 생활이구나'라는 로망을 꿈꿔왔다.

올해 그렇게 꿈에 그리던 대학에 합격했다. 그것도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경희대학교에 말이다. 기숙사를 신청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모르겠다. 꿈꿔오던 대학생활의 모습 한 페이지는 늘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우정원에 입사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다. 우정원의 첫인상은 지저분하고 어둡고 칙칙했다. 그러나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 방을 배정받고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오르며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복도로 들어선 순간 마주한 오래된 방화문과 방문은 위압감마저 들 정도로 삭막했다. 설치한지 10년은 족히 돼 보였다. 화장실 역시 좁고 컴컴했다.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공간이 아니었다. 외딴 곳에 우두커니 있는 오래된 청소년 수련원이 연상됐다.

바닥재와 천장은 낡은 병원을 연상시켰고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렇게 밤이 찾아왔다. 기숙사의 어둡고 으스스한 분위기는 극대화됐다. '아! 못살겠다.' 이런 환경이 대학생활에 도움이 될 리 없다는 판단에 퇴사를 마음먹었다.

컴컴한 기숙사에서 벗어나자 안정감과 편안함이 느껴졌다

자취를 시작하면서 더욱 확실해졌다. '못 살겠다'는 감정은 실질적인 불편함과 불안감에서 발생했다는 걸. 지금 살고 있는 자취방이 엄청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숙사생활 내내 느꼈던 우울함은 사라졌다. 기숙사가 주는 우울함은 강의가 끝난 후 기숙사로 돌아가는 것을 꺼리게 했다. 그래서 밖으로 내돌았다. 하지만 자취를 하면서는 곧장 돌아왔다. 안정감과 편안함이 느껴졌다.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첨언하자면 기숙사비와 지금 살고 있는 자취방의 월세는 별반 다르지 않다.

얼마 전 우리학교 학생들 사이에 우정원 관련 기사가 화제가 됐다. 진위여부를 떠나 우정원에 대한 문제와 의혹이 커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기숙사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커져가는 동시에 기숙사비 마저 저렴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숙사는 타지에서 온 학생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편안한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은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다. 기숙사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후배들은 청춘 시트콤의 한 장면 같은 대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 기숙사를 바란다.

대학주보 66기 수습기자 모집

●모집 대상
– 우리학교 학부 1학년 재학생
– 3학기 이상 가능한 자

●전형 일정
– 지원 기간 : 2017년 9월 1일~9월 11일
– 면접 일정 : 12일(서울캠퍼스), 13일(국제캠퍼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전형 방법
– 1차 입사지원서(지원기간 중 제출)
– 면접일 당일 2차 필기시험 및 면접
– 필기시험 : 대학주보 특정 기사에 관한 논평

●접수 방법
–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에서 입사지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제출

●주요 업무
– 학내뉴스 아이템 발제 및 취재
– 온라인 혹은 지면발행 기사작성

●혜택
– 소정의 취재비 및 원고료 지급
– 소정의 장학금 지급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961-0095(서울캠퍼스 편집실), 031-201-3232(국제캠퍼스 편집실)
– 이메일 : khunews@khu.ac.kr
– 휴대전화 : 010-3005-7798(편집장)

경 희 대 학 교 대 학 주 보